

## < 要 約 >

### 1. 세계 경제

- 세계 경제는 97년에 이어 98년에도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. 경제 성장과 함께 교역 규모의 증가도 계속될 것임.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이 세계 경기를 주도하며,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도 비교적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임. 따라서 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 여건은 대체로 양호함
- 전세계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EU, NAFTA 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域內 무역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에서의 영업 확대를 시도해야 함
- 미일간 무역적자 문제로 엔貨가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으며, 유럽 통화통합의 진행으로 마르크貨도 강세가 예상되어 98년에는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 전망

### 2. 국내 경제

- 98년의 국내 경기는 97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로 반전될 것임. 그러나 경기 회복은 수출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, 내수와 투자는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
- 현재와 같은 금융부문의 불안 현상은 98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 자금 시장의 경색은 당분간 지속되나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은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에 큰 애로가 없을 것임
- 물가 상승 압력과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갈등요소로 인하여 98년의 노사관계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-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한 핵심 경영역량의 강화가 新정부 경제 정책의 이슈로 부각될 것임

### 3. 주요 산업 전망

- 97년에는 내수 위주 산업의 극심한 부진과 수출 주력 업종의 호황이라는 업종별 경기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음. 정보통신 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보임
- 98년에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이러한 경기 차별화 현상은 완화될 것임.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

### 4. 정책 과제

- 외환 및 금융 위기의 해소를 위해 외환보유고의 확충, 대외 협력 강화, 불안 심리제거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함
-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구조 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핵심 역량 위주의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함
- 고비용 구조 해소와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함
-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외교 창구의 단일화, 민간기구 활성화, 대외 공조 체제 확립 등을 통해 외교력을 강화하여야 함

### I. 97年 國內外 經濟 評價

- 97년도 國內의 經濟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음
- (세계 經濟 成長세 지속) 평균 4%에 육박하는 비교적 건실한 成長을 보임. 미국 經濟의 活潑이 세계 經濟 주도. 그러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통화 위기가 成長 阻害 要因으로 등장
  - (國內 經濟의 極심한 침체) 상반기 成長은 5.9%에 그침. 소비 增加율과 설비투자 增加율은 90년대 최저 수준
  - (외환위기 可能性 대두) 경상수지 적자 누증과 외채 급증으로 외환위기 可能性 대두. 원貨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경험
  - (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)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. 금융기관의 부실화
  - (經濟 전반의 구조조정 지속) 경공업 침체, 중공업 부진 속에 첨단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약진. 과다한 차입 경영과 무분별한 事業 확장 기업의 연쇄 도산
  - (업종간 經濟의 차별화) 수출 위주 산업 經濟는 회복세,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은 極심한 부진

#### ■ 세계 經濟의 健실한 成長

미국을 중심으로  
전세계적으로 고  
른 成長세 시현

- 97년 世界 經濟는 평균 4%에 육박하는 健실한 成長을 보일 것임
- 미국의 經濟 好황, 일본과 유럽의 經濟 회복, 중국 經濟의 안정적 成長, 중남미와 체체전환국 經濟의 회복 等 전세계적으로 고른 成長세를 보임
- 단 동남아 개도국은 하반기 이후 통화위기의 후유증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- 世界적인 經濟 成長세의 動因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물가안정으로 보임. 97년도 전세계 交易 규모는 7%의 成長을 보일 것임

## ■ 국내 경기의 극심한 침체

상반기에는 소비, 투자, 수출이 모두 부진,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

- 상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96년 7.1%에서 5.9%로 급락
- 97년 전체로는 6.3%의 성장 예상
- 소비지출의 증가세는 90년대 최저이며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임
- 상반기 수출은 주력 수출 산업의 해외 시장 여건 악화와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임. 6월 이후 수출은 해외 시장 여건의 개선과 원화 환율의 절하로 회복세로 반전

## ■ 외환위기 가능성과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

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대기업 부도는 금융경색, 환율 급등,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

- 97년에는 연초와 3/4분기 두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 가능성이 대두됨
- 연초에는 경상수지 적자의 급작스런 악화와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인한 대외 지불 능력의 감소가 문제였음
- 3/4분기에는 국내 금융부문의 교란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상승 현상이 두드러짐
- 연초부터 지속된 대기업 부도의 여파로 국내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
-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신용도 차이에 따른 금리와 대출의 양극화 현상 발생
- 금리 상승,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급증, 정부 정책의 失機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의 대외신인도 급락

### ■ 구조조정 및 업종간 경기 차별화

경쟁력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간 경기의 차별화 현상 발생

- 경쟁력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어음부도율과 실업률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음
- 정공업의 극심한 침체, 중공업의 부진 속에서 첨단 제조업 분야와 관련 서비스업은 20% 이상의 성장 구현
- 내수의존도가 큰 업종(자동차, 건설, 기계 등)의 경기는 매우 부진한 반면, 수출 중심 업종(석유화학, 조선, 반도체 등) 경기는 하반기부터 회복세
- 한편 과도한 차입 경영이나 무리한 사업확장의 결과로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어음부도율은 계속 0.2% 이상 유지
- 불황, 신규 채용 감소, 기업의 감량경영 등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실업자도 지속적으로 55만 명 수준 이상을 유지